



열아홉번째 이야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올해 3월 BEE 개강 전날 새벽 즈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올해는 하나 끝나면 하나 또 선택하고 하는 일이 계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1년 내내 쪽 연결되는 게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러던 찰나 내 눈을 사로잡은 게 바로 온비아 1년 과정이었다. 듣도 보도 못했던 것이었지만, ‘뭐 성경이니까~! 뭐 모르는 게 한두 개냐~?’ 하는 생각으로 일단 수강신청을 했다.

하지만 오리엔테이션 첫날,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드는 생각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다. "어, 어라라? 이게 아닌데에...?" 매년 숙제에 시험에..... 꼭 그런 느낌이었다. 유딩이 갑자기 초딩이 된 것 같은.

그 누구도 내가 초딩이 될 거라고, 또 초딩 되면 가방 매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숙제도 있고, 시험도 있다고, 왜 말을 해 주지 않았을까. 하기가, 그걸 들었으면 초딩 안 되겠다고, 유딩으로 계속 있겠노라고 버텼을 나란 걸 안다.

이번엔 아웃리치도 있다고 했다. 알아보니 무슨 현장체험학습 비슷한 것이고, 꼭 가야 하는 건 아니라는 모양이었다. 아웃리치 기간 공지하시면서 갈 수 있느냐고 물으시기에 “6월은 안 되고, 7월은 방학이라 그 기간은 가능해요.” 했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어느 새 그 말은 “가겠습니다.”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유딩이었던 내가 초등학교에와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배우면서도 징징거리면서, 꾸역꾸역 해나갔다. 아웃리치 참가신청 하고나서도 별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예컨대 이런 생각이었다. ‘노는 건 잘할 수 있는데 이 건.... 솔직히 내가 거기 가서 뭘 하겠어?’ ‘중간에 못 간다고 하고 빠질까?’

그러다가 7월 19일 QT말씀중에 의문이 생기는 구절이 있었다.

『여호수아 4장 24절 :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와 그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요 주님! 하나님이 강하시단 건 알겠는데, 2천 년 전 말고 오늘날은요? 그리고 얼마나? How big, How deep, How wide? 잘 와 닿지가 않아요. 꼭 제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시진 않아도 좋으니, 하나님의 강함이 어떤 건지 보고 싶어요.” 그렇게 준비과정은 번갯불에 콩 볶듯 급박하게 진행되어 갔고, 팀원들 중에 아픈 사람, 집안에 일이 있는 사람도 생겨났다. 그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참 순탄치 않구나~ 꼭 가야 하나? 간대도 뭐 있을까? ...모르겠다. 그냥 가서 보거나 하자.’

어느새 출국 전날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신자분 아들이 장염으로 2번째 입원하게 되었다. 나는 병문안을 가서 무료한 시간 유익하게 보내라고 CGNTV 말씀 링크를 걸어주고 ”전쟁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를 외치고 숙제를 끝낸 기분으로 신나게 나왔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전쟁(?)이 터졌다. 접촉사고가 난 것이었다. 이쯤 되면 시험에 들 법도 하지만, 난 아니었다. 오히려 없던 기대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당최 가서 뭐가 있기에 이런 일로 방해하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작품의 논픽션 액션 블록버스터 대하드라마는 시작되었다. 두 눈 부릅뜨고, 두 귀 쫑긋 세우고 감상하시라!



매일아침 QT로 하루를 시작했다. 첫날 주신 말씀은 겸손과 순종이었고, 거기서 난 이렇게 기도했다. “**Just Go & See!** 라고요? 알았어요, 주님. 가서 보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뻥센 방문 일정이 시작되었다. 그 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꽤나 멀었는데, 가던 차 안에서 팀원 하나가 선교사님께 질문했다.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기사님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교사님께서 는 그 나라의 법 때문에 현지 성도들에게 해가 가기 때문에 전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하셨지만, 그럼에도 그 의문은 가라앉지 않은 듯 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는 장로님의 핸드폰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로님께서서는 갑작스런 장 트러블로 인해 들렀던 주유소 화장실에 놓고 온 것 같다고 하였고, 우리는 차를 돌려야 했다. 기사 분께서는 “가 봤자 없다.”, “보통은 가지도 않는다.”면서도 순순히 차를 돌려 도착한 주유소. 기사님은 차 문을 열어주고 바로 달을 생각이었는지 문을 붙들고 서있었다. 그런데 갑자기사님은 두 손을 번쩍 들고 박수를 쳤고, 그뒤로 장로님께서서는 핸드폰을 들고 나오시는 장로님이 보였다.우리와 함께 하셨던 기사님은 기적을 본것 같다고 하셨다.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진 않았다. 그러나 그 분은 우리의 우연한 사건, 실수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어디서 “보았느냐?”하는 말씀이 들린 것 같았다. 그래서 대답했다. “주님 참 대단하신 양반이다. 입이 없어도 되네요.

드디어 마지막날이다. 아침 QT말씀은 걸을 보고 판단하고 주께 묻지 않아 실수한 여호수아 이야기였다. 그러다가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방문교회. 아무런 기대 없이 들어간 그 작은 교회에, 우리를 기다리는 멋진 한 방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은 전쟁으로 한 차례 폭파된 적이 있는 교회였는데,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과 담임목사님은 전쟁이 없는 곳으로 피난을 갔고, 남아있던 6명의 성도가 모든 것을 견디고 지켜내었다고 했다. 지금 계시는 목사님은 전쟁이 끝난 이후 그곳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셨는데, 부임 당시 목사님 앞에 나타난 것은 수화로 대화해야만 하는 청각장애인 성도들이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놀랍게도 사역을 시작한 지 1달여 만에 그들의 수화를 이해할 수 있었고, 3개월 정도가 되자 수화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고 하셨다. 물론 수화는 배운적이 없으셨다. 수화를 알아듣고 수화로 표현하게 된 본인도 놀란 일이었지만, 그 성도들이 더 놀랐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마음을 맞춘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여하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일하셨던 것이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 모든 무릎이 저절로 꿇였다. “이런 나를 어찌 하오리이까!” 탄식과 경외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제야 알았다. 하나님은 내가 스치듯 한 기도를 잊지 않으셨던 것이다, 당신의 힘을 눈앞에 떠억!하니 뚜렷이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다. 그 외에도 아웃리치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부여하신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았는데, 너무 많은 탓에 이 글에 모두 담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니 그곳으로 나를 이끄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아웃리치를 통해 내입의 말을 바꾸어주셨다.

“주님, 유딩 손 붙들어서 BEE 초등학교에 들여보내셨으니 일단 졸업은 해볼게요. 저 깡통인거 아시죠? 하하하”

(글: 송숙영, 편집: 최지영)



송숙영(42세, 산본안산공동체)

2010년 주님 영접. 입시학원 영어강사. 가족은 6학년 딸. 2014년 온누리교회로 옮기면서 일대일 동반자, 양육자반을 거쳐 영적 재생산에 대한 이해가 생김. BEE는 2016년 3월 온비아로 시작함. 조각난 프로그램들이 아닌, 1년 정도는 연속된 큰 흐름의 스쿨을 찾다가 단지 기간이 1년이란 것만으로도 BEE를 선택함. 말씀과 부딪치면서 모르고 왔지만 은혜임을 체험한 이후로는 베트남 아웃리치도 잘 모르지만 일단 가보면 무슨 은혜가 있을지 어찌 알겠나 하는 기대를 안고 떠남.

